



빛의사람들

2018.12.

280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예수 성탄〉, 1460년경, 지오바니 프란체스코 다 리미니(Giovanni Francesco da Rimini, 1441/44-1469),
아비뇽 프티팔레 미술관, 프랑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제20기 2018년 기쁨과희망은행 하반기 창업교육

10월 22일(월)~26일(금)까지 제20기 2018년 기쁨과희망은행 하반기 창업기초교육이 있었습니다. 총 10명의 교육생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사회 정착과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0일(토) 대출심사를 통해 선정된 교육생들은 멘토와 함께 창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반포4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1월 3일(토)~4일(일) 반포4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안타까운 수용자들의 사연 소개와 “2000년 전 예수님도 사형수였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였고,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자분들의 교정사목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반포4동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5일(월) 파주에 위치한 전진성당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잃고 광탄 나자렛 묘원에 묻혀있는 사형수 형제들(총 25구)을 찾아 이들을 위한 연도와 기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께서 사형수를 받아들이셨음을 묵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사 9,1)**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공포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어머니가 옆에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공포영화를 보는 취미를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포영화를 즐겨보곤 합니다. 공포영화의 특징이라면 어두운 시나리오를 사용하며 그것으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 전 공포 시리즈의 하나인 <힐 하우스의 저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의 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유령들과 사는 다섯 형제 간의 심리적 갈등, 스트레스,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Hill House처럼 유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Carl G. Jung)은 유령을 그림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자는 사람들의 성격의 두 번째 얼굴이며, 그 얼굴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두려움, 죄책감, 비밀, 후회, 실패, 비통, 수치심 등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형제들은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두려움, 두려움은 논리의 포기다. 합리적인 패턴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두려움은 마치 사랑 같다. 사랑은 논리의 포기다. 합리적인 패턴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굴복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러나 그 중간은 없다. 사랑이 없이 우리는 오랜 시간 적대적인 현실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영화 대사 중).”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두려움을 떨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이사악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처음 글을 적기 시작할 때에는 성경 속 인물의 ‘죄’와 ‘벌’, 그리고 용서 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인물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더욱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볼 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낙인찍어 놓은 인물들인, 원죄를 지은 아담, 동생을 죽인 카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조 아브라함마저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팔아넘기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힌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때마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고백하며, 미사 때마다 ‘제 탓이오’라고 가슴을 치듯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때문에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짓는 일상의 잘못들을 반성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악은 그러한 성찰을 하기에 참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사악의 뜻은 웃음입니다. 늦둥이를 가지게 된 사라는 기뻐하면서 하느님께서 웃음을 가져다주었다며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창세 21,6). 기쁨과 환호의 웃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하느님이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일화를 떠올린다면, 냉소와 불신의 비웃음을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창세 18,12-15).

이사악 이름이 이렇게 이중적이듯, 이사악 삶의 평가 역시 이중적입니다. 자신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라는 웃게 되지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르는 쫓겨납니다. 모리야 산으로 올라가면서 번제물로 바칠 양이 없음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하느님이 손수 마련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가는 모습(창세 22,7-8), 아브라함의 심복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내로 점지해온 여인을 가타부타 말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창세 24,67),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순종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무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실재(實在)로, 에사우와 야곱의 장자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무능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것도 아버지가 사랑하던 에사우가 장자권을 콩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창세 27,1)라고는 하

지만, 아내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쳐 받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은 어쩌면 이사악의 생물학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더불어 가족 안의 위치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힘 없고 사리판단에 어두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야곱이 축복을 훔쳐 에사우를 피해 도망간 후 이십 년 후에 돌아온 뒤에도 이사악은 살아있었고 백여든 살의 나이로 ‘한껏 살다가’(창세 35,28) 죽은 것을 유념하면 은유적 표현에 더욱 심증이 갑니다. 이사악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수동적 대응이 결국 가족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죄란, 잘못된 행위를 행한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보다 진실을 말하지 않음 역시 잘못이며, 잘못된 행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 잘못 없다기 보다 잘못된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함 역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하다고 사회가 그러하다고 손 놓고 혹은 비난만 하는 것 역시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고 따라함 역시 옳바르지 못합니다. 중대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사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던 이민족 지방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잘못(창세 26,7)까지 범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이사악이 보여주었듯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따라 함은 무척이나 쉽습니다.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사회, 점점 잔혹해져 가는 범죄에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며 악성 댓글을 다는 남들과 더불어 ‘죽여라 죽여라’ 악악대기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양 쫓쫓 하면서 무심히 지나가 버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기를 사랑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감옥에 갇힌 이와 출소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봉사자님들과 후원회원님들의 도움과 후원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고 강하게 느껴집니다. 🙏





든든한 동반자 기쁨과희망은행

20기 창업교육생 소감문

서○○

처음 창업에 필요한 돈만 보고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뭐 배워갈 게 있겠어!” 그러나 그 생각은 철저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둘째 날 모세종 위원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은 창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시간 이어지는 강사님들의 강의들은 제가 하려고 하는 기업의 ‘모퉁이 돌’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지붕’이 되었습니다. 제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던 강연들은 저의 사업 모델에 적용해 생각해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것들이 제 계획에 하나하나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며 수많은 사건 중에서 “주님의 뜻(God’s will)”이 어디에 이고,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과정에 주님께서(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향한 뜻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저에게 주어지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저는 지금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유익한 기회를 주신 ‘기쁨과희망은행’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최○○

먼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따뜻한 응대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같이 창업교육을 받는 분들 대부분 실패를 겪고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성공하셔서 ‘기쁨과희망은행’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재도전을 꿈꾸는 사업자들에게 계속된 혜택이 더 크게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외식업 창업 쪽에 종사하여, 점주 창업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영업 전반 관리와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은 받는 쪽보다 하는 쪽이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교육 내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교육 과정 중에서 제가 하려는 사업과 연관된 일에 유독 강의에 흥미를 더 갖게 되고 약간은 사업과 연관성이 없겠다는 교육에는 집중이 조금 덜 되었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강의 외에 개인 질문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힘든 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수고하신 신부님과 여러 강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시는 일이 쉽지 않고, 그 결과 또한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그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열정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몇 가지 있지만 사실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또는 종교를 강요하는 데 반해, 이곳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 나의 머리는 꼬덕이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강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기에 부족하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받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실 사업의 보탬이 될까 싶어 돈을 융통하려 왔지만, 더 큰 것을 받고 가는 듯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받은 고맙고 따뜻한 마음 저도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큰 시련과 아픔 뒤에 더 크게 웃을 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월 22일(월)~26일(금) 20기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기초교육이 10명의 교육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교육을 토대로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1월 10일(토) 창업 대출자 심사와 멘토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들을 발판으로 삼아 창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Nothing better than this

엄진영 아녜스 / 분류심사원 남사 봉사자

외할아버지의 잦은 외도와 가정 폭력 때문에, 외삼촌과 이모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부끄러운 가정사가 밖으로 나가는 걸 걱정한 엄마는 늘 나에게 입단속을 시키셨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픈데 말하는 대신에 꼭꼭 숨기고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하는 나의 삶은 매우 염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주변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친구는 없었다. 나는 몹시 외로웠다.

아마도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있던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한 삶을 내버리고, 가여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까맣게 잊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행복하지가 않았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 나는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패배자, 부랑자로만 여겨지던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묘한 삶의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님은 과연 화려한 헤로데의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 계신 타인인지 그렇게 남루한 삶 속에서 나는 비로소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살레시오와의 만남. 그리고 분류심사원에서 청소년들과 만남. 기쁨과 은총의 절정이다.

11살 때 포도나무 아래서 가졌던 소망은 주님의 소명이었던 것일까?

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오는 소녀들과 소년들은 분명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낯설지가 않다. 나의 예전 모습 같기도 하고, 나의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 고통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전달이 된다. 그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면, 금세 나는 그들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나보다 한참 젊은 수사님들과 신부님들이 때론 엄마처럼, 때론 아빠처럼 끌어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우리 봉사자들까지도 품어 줄 때의 감동이란……!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직장생활도 결혼도 하기 어려웠던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고, 그런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위대한 작업에 나를 끼워주시다니.

찬미 예수! 하바 나길라 [Hava Nagilah : 우리 함께 기뻐하자]!!!!



창가에 눈을 기대어

햇살이 내리는 창가에 눈을 기대어
푸른 하늘에 조각 구름 사이로 주님을 불러본다

바람 불어 흩어진 구름 속일지라도
이 눈 안에 모여모여 있네

막막했던 황무지 끝자락에 열리는 밤
그립고 그리워 수없이 입 맞춘 별이 있음을
내가 아닌 누구도 모르리라

날마다 잃었다가 되찾는 나의 눈동자
먼 교정의 저편에서 오는 하늘빛이기에
아무도 볼 수 없었으리라

창가에 눈을 마주하고
하늘 같은 이름 불러본다
천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불러본다

최○○ 아드리아노 3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 기도



세상 어둠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시(詩)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이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 아기
기쁨의 아기여

진정한 성탄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와 기쁨뿐임을
다시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웃에게...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
담
달

(11)

양삼우
도로테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문데 사신다





후원알림마당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과의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결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1월 7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1~11/10)

10월~11월에는 반포4동 성당 118명의 교우님들과 김정은 소피아, 김태숙 소화데레사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알림

- 12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2월 3일(월)~17일(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 인문학 교육 / 교정사목 센터
- 12월 4일(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세례식 / 서울남부구치소
- 12월 5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세례식 / 서울구치소
- 12월 8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2월 10일(월)~17일(월) 서울남부구치소 4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12월 11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세례식 / 서울남부교도소
- 12월 27일(목)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 명동대성당
- 12월 28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 성탄 미사 / 서울구치소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